

전주 금융복지상담소 '빈곤탈출구'

업무개시 한 달 만에 개인회생·파산 등 금융상담 170여건 쇄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탈출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금융복지상담소는 근무를 개시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총 172건의 금융 및 채무관리 상담이 쇄도하면서 가계부채의 악순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가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 및 상담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빛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채무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달 20일 노송동 도시혁신센터 3층에 공식 개소했다. 상담유형별로는 방문상담 59건과 전화 상담 113건으로, 채무조정 상담 97건과 대출상품 문의 등 기타 상담 58건, 재무상담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58명과 40대

49건 등 주로 4~50대 중·장년층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60대 이상 36건, 30대 28건, 20대 이하 1건 등 전 연령층의 시민이 금융복지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소는 △가계채무관리상담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 △시민 금융복지 교육 △법원신청서류 대행 △발법사금융 예방상담 등 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재정 상황을 평가한 후 채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우진문화공간에서 전주시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 시민강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강좌에서는 유규광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장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계 재무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복지 특강을 진행한다. 시는 채무관리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빛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채무관리 상담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금융복지상담소가 빛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과 가계부채의 유혹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소를 이용해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소화가 잘되는 우유' 이벤트 실시

매일우업, 골다공증 날 맞아

매일우업이 오는 20일 국제골다공증재단(DDF)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뼈 건강을 위한 락토포리 우유 '소화가 잘되는 우유' 섭취를 권장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평소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우업은 칼슘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유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벤트는 오는 11월2일까지 '소화가 잘되는 우유'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1등(5명) 5만원 백화점 상품권, 2등(15명) 명화 예매권, 3등

(40명) '폴바셋 소살라떼'를 받을 수 있다.

매일우업 관계자는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배탈증상의 원인이 되는 유당은 제거하고 칼슘 단백질, 비타민 등 우유 고유의 영양소와 풍미를 그대로 살린 제품"이라며 "특히 칼슘 함유량을 일반 우유보다 두 배로 강화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우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당을 제거한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선보인 바 있다.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는 오리지널 제품과 일반우유 대비 지방을 1/2로 줄인 저지방 제품이 있어 칼로리를 신경 쓰는 소비자도 선택이 가능하며, 무균 공정으로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제품이 출시되어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뉴시스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어르신 집 고쳐주기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 18일 김제시 축산면을 방문하여 농어촌 집 고쳐주기 행사를 통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박종대 단장과 사업단 직원 30여명은 차상위 계층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 A 할머니 집을 방문하여 비탈 차단을 위한 창호 설치 작업과 노후화되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일러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네 주변을 돌며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박종대 단장은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행복나눔 정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누에고치 실크단백질, 의류용 3D프린팅 재료로 활용나서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을 의류용 3D 프린팅의 재료로 이용해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다양한 의도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19일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을 3D 프린팅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3D 실크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해 뼈 고정판, 뼈 고정나사, 뼈 고정클립 등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 3D 실크프린팅 시스템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실크단백질을 개발하고, 실크단백질 사용이 적합한 노즐, 온도 조절장치 등을 최적화했다. 뼈 고정판·고정나사·고정클립 등은 뼈 골절 시 사용하는 의도기로서, 골절 부위가 다시 붙을 때까지 뼈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뼈 고정판은 주로 금속이나 합성고분자로 만든 것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 재질로 만든 뼈 고정판의 경우, 골절된 뼈가 완치된 후 이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이 필요하다. 합성고분자로 만든 뼈 고정판은 생분해돼 2차 수술이 필요 없지만, 뼈 고정력이 떨어져 뼈가 어긋나거나 벌어질 수 있으며 가격이 비싸다. 특히 뼈 고정판이 곡면 형태의 뼈(두개골 광대뼈, 위·아래턱뼈 등)에 시술했을 때 두드러진다. 농진청이 개발한 바이오 3D 실크프린팅 시스템으로 만든 실크 뼈 고정판은 압축 강도와 굽힘 강도가 합성고분자로 만든 것보다 강해 뼈 고정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생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2차 제거 수술이 필요 없다. 또한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곡면 형태의 뼈를 고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실제 동물실험을 통해 실크 뼈 고정판 등을 적용한 결과, 염증이나 이물 반응 없이 효과적인 뼈 접합 성능을 보였다. /뉴시스



호원대학교가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시장 진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호원대 GTEP사업단, 아프리카 수출시장 진출나서

2년 연속 우간다 국제무역전시회 참여,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담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시장 진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호원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교수와 학생 12명은 지난해에 이어 10월 초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제24회 우간다 국제무역전시회'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출품, 활발한 수출상담

활동을 벌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김제시 소재 농기구업체인 '쥬아폴로'의 고압분무기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상당한 경쟁우위를 인정받아 바이어들과 현지 교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업체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기업들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개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유규광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장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계 재무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복지 특강을 진행한다. 시는 채무관리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빛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채무관리 상담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금융복지상담소가 빛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과 가계부채의 유혹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소를 이용해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주얼펠리스 보석축제 개막

26일 익산 왕궁면에서

진귀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보석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6 주얼펠리스 보석축제가 오는 10월 28일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한 주얼펠리스에서 개막한다. (사)주얼펠리스협회(회장 정춘호)가 주최하는 2016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얼펠리스에 입점한 60여개 업체의 화려한 보석들과 보석 제품을 30% 특별 할인(24k, 다이아몬드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희귀보석 특별전시,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 시연 및 체험 등

다양한 보석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익산의 대표축제인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익산 보석 테마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이 함께 개최되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정춘호 주얼펠리스장은 "우리지역의 대표 축제인 2016 보석대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참가해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빛어낸 아름다운 주얼리 작품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기며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